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여성들이여! 능력을 보여 주세요

신 계 숙
배화여대 교수

법무부 대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에 모두 여성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사회면 뉴스로 접했다.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에서 여성 검사들이 약진했다는 것이다. 남성 지배적인 구조를 보여 온 법무부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니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1980년대 필자는 대학을 졸업한 후 요리사가 되겠다며 중국음식점 주방을 자원해서 들어간 적이 있다. 조리사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환영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어도 들어가서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간 첫날부터 그들은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주방 보조 자리라서 무엇이든 씻고 닦는 일을 해야 하는 나에게 수도꼭지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묻자 "어디 여자가 주방엘 들어오느냐. 더욱이 대학을 나온 여자가 왜 남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주방을 남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벼슬자리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한 과를 대표하는 학회장은 거의 남학생이었다. 어쩌다 여학생이 학회장에 출마하려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딸이 똑똑한 것은 좋지만 똑똑한 딸로 인하여 아들이 치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교수님 또한 한 학과의 장은 반드시 남자가 맡아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다.

3000년 전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의 사간시(斯干詩)에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마루에 누이고 옷을 제대로 입히고 장난감을 줘라. 우는 소리가 우렁차면 장차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니 빛나는 홍색 옷을 입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땅바닥에 뉘이고 장난감 대신 깨진 그릇 조각을 갖고 놀게 하여라. 아이가 자라면 복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술 담그는 것과 밥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조속히 배우자를 찾아서 시집을 가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이미 3000년 전에 규정지어진 것이다.

가정에서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말은 또 어디서 온 것인가? '맹자'(孟子)의 '양혜왕상'에는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왕 노릇 잘하는 방법에 관해 묻는 구절이 나온다. 왕이 당상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소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었는데 도살장에라도 끌려가는 듯했다. 왕이 물었다. "저 소는 왜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그러자 신하가 "종을 만들 때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각 조각을 모두 잇고 나서 마지막에 소피를 바릅니다. 이 과정을 흔종이라 하는데 저 소를 잡아서 흔종에 사용할 피를 구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왕은 "내가 그 소를 보았고 소를 잡으려면 비명을 지를 터인데 그것을 보고 내가 어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군자는 주방을 멀리해야 하느니라"라고 하였다. 이 구절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일'로 변질되어, 여성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밥하는 일'을 고유의 업무로 여기며, 평생을 그저 숨죽여 살아야 했으니 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인가.

중국이 개혁·개방을 외칠 때 덩샤오핑은 '흑묘백묘론'(黑猫白描論)을 주창했다. 검은 고양이이든 흰 고양이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은 다소 진부해 보이지만 곱씹어 볼수록 명언이다. 국가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남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와 할 수 없는지를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자를 전진 배치해야 한다. 여성들은 더 이상 겸손과 인내를 미덕으로 삼지 말고, 자신감과 천재성을 밖으로 꺼내어 펼쳐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나는 능력 있는 여성들이 세밀하고 뛰어난 통찰력과 특유의 직관력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시작은 불평등했던 것을 평등하게 바꾸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깨달음과 나눔

김 원 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깨달음이란 하나임을 아는 것이다. 원불교 정전에 보면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하였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고 개인과 개인끼리는 사랑할 것이고 가정과 가정끼리는 친목할 것이다. 또한 사회와 사회끼리는 상통하고 국가와 국가끼리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이기에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자리이타(自利利他)로써 함께한다.

중생의 병이 보살의 아픔이고 중생의 행복이 보살의 기쁨이다. 사은(四恩: 원불교 교리의 신앙과 수행의 두 문 가운데 신앙문에 속하는 천지은(天地恩)·부모은(父母恩)·동포은(同胞恩)·법률은(法律恩)을 말함)의 큰 은혜를 믿는 우리로서는 언제나 보은(報恩)의 도리를 실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하겠지만 지금은 더욱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 정신을 발현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날로 늘어만 가는 실업자들의 문제,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 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쌓여 가고 있다. 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행히 원불교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무료 급식도 실시하고 있다. 원불교 종로교당에서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직자를 돕는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해 은혜를 나누고 있다. 영광 영산성지와 수계농원, 만덕산농원 등에 마련한 귀농 교육과정도 나눔의 정신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산업이다. 선한 마음들이 실제적 도움으로 연결되려면 이러한 구체성 있는 사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내 코가 석 자인데 남 생각할 여유가 있느냐'고 외면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의 불안이 나의 가정에 위협이 되고 사회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콩 한 쪽도 나눠먹던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6·25 전쟁 이후 최대의 환란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강인한 의지가 있고 기반시설과 생산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총량적으로 보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서로가 힘이 되어 밀어 주고 이끌어 준다면 어려운 일도 점점 쉬워지겠지만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자기 몫만 챙기려 든다면 흑자 부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끝없는 욕망의 추구는 과소비와 환경 오염,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정신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경제적 위기를 당하여 '바루자 살리자 운동'은 그간 잘못된 생활태도를 바루고 허약해진 경제를 튼튼하게 하자는 운동이다. 은생어해 해생어은(恩生於害害生於恩)의 이치를 바로 알면 오늘의 고통이 은혜가 될 수 있다. 경제구조의 조정과 함께 의식구조의 조정을 통해 영육이 쌍전하는 참 문명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지금의 이 시련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다행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 반성 없이 단순한 경제 회복에만 매달리다 보면 또 다른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많은 생각들이 공유되고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철학들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러나 경제 회복에 급급한 나머지 그간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경제 정의를 위한 장치들을 해제하는 것은 염려해야 할 일이다. 기업의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의식구조의 조정이다. 이러한 의식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는 싸우게 되고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嫌隙)이 생기고 사회와 사회끼리는 반목(反目)이 되고 국가와 국가끼리는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며 근검하는 생활습관과 자리이타의 공동체 윤리를 세워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천지만물과도 상생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증진시켜 가야 한다. 이러한 안목으로 모든 일을 취사하고 행동해야 한다. 나눔은 불보살의 인격을 함양하는 일이며 경제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불공이고 보은이다.

기 고

해조류와 전복을 먹어 온실가스 줄이자

박 현 식
여수시 부시장

최근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대인들이 미역·김·다시마 등을 선호하면서 해조류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예능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걸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김부각 먹방'으로 온라인상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류스타를 통해 주목을 받은 셈이지만 해조류는 간식거리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매우 이로운 알칼리 식품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포 재생 능력과 체내 노폐물 배출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를 감소시키고 무기질·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블랙 푸드로 세계적 관심 대상인 해조류는 갯벌과 염습지, 연안 앞바다에서 자란다. 바닷속에 존재하는 염류, 육상에서 전달되는 영양물질과 햇빛을 통해 자양분을 축적한다. 해양은 건강한 순환 생태계를 이루면서 해조류, 어류를 키웠고 인류와 함께해 왔다.

그런데 최근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가뭄·폭염·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떤 지역은 재앙과 같은 피해를 입기도 한다.

탄소 배출은 해조류가 사는 해양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수소 이온은 바닷물의 산성화를 유발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 수소 이온이 물에 녹으면서 탄산을 방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산성화되면 바다 생물 성장에 방해가 된다. 조개나 가재 등 껍질을 가진 해양생물은 탄산 이온을 이용해 칼슘과 반응 후 골격(껍질)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산성화가 가속화되면 골격을 만들지 못해 성장이 어려워진다. 바다의 산성화는 어류와 식물성 및 동물성 플랑크톤, 산호초의 성장을 방해하여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유엔은 이러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의무처럼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를 막을 방법이 있다. 해조류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첫째, 김을 비롯한 해조류는 식물이다. 식물은 육상에서나 해상에서나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위해서는 탄소를 받아들이고 반드시 산소를 배출한다. 양식된 해조류는 매년 수확을 하게 된다. 이 수확을 통해 탄소는 제거되고 오염 물질은 분해되면서 수생 생물에 필요한 산소가 풍부해지는 것이다.

둘째, 전복 양식은 미역과 다시마를 먹이로 제공한다. 전복 1㎏을 키우려면 미역과 다시마 15㎏ 정도가 필요하다. 또한 전복 껍질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여 탄산과 칼슘 등으로 이뤄진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다.

셋째, 미역 등 해조류는 햇빛과 적당한 탄소원(대기 중 이산화산소가 바닷물에 녹은 탄산 등)에 의해 자라고, 이들을 먹이로 하는 양식 전복은 2년 반에서 3년에 걸쳐 상품으로 수확된다. 양식을 통해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이다.

넷째, 미역과 다시마, 전복 양식은 복합 양식이다. 즉 미역과 다시마 주변에서 전복을 키울 수 있다. 미역과 다시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소는 주변의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남도에서는 해조류와 전복을 키우는 양식산업이 활발하다.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이자 인류에게 무한히 훌륭한 식량을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건강에도 좋은 해조류와 전복을 자주 먹는 것은 지구를 지키고 어민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복 양식하는 어민들이 어렵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전복 미역국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 가족이 지구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눠 보는 것은 어떨까? 전복과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를 먹는 것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를 구하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다. 아울러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와 패각류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社 說

델타형 변이 속출…방역 긴장 늦춰선 안 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델타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한 변종이다. 게다가 영국에서 발생한 알파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40~60%나 더 높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3명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델타 바이러스 감염자는 전남 1571·1572번과 1594번으로 모두 순천 지역 확진자로 나타났다. 1571번과 1572번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순천 골프 레슨 관련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1594번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 입국자다. 이들은 치료 과정에서 기존의 코로나 확진자와 다른 특이점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까지 전남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변이 종별로는 영국(알파) 변이 20명, 델타 변이 12명 등이다. 이에 앞서 광주에서도 코로나19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지난달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감염 18명, 해외 감염 6명 등 모두 2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광주·전남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다소 빠르게 거리 두기 완화에 돌입된 상태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한 만큼 언제든지 코로나를 재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자치경찰제'가 어제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 분권 이념에 따라 광주시나 전남도 등 광역 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사무를 넘겨받아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하지만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가장 큰 변화인 데다 경찰 조직 내 지위체계 이원화로 시행 초기에는 혼선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두 달 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준비 부족과 일부 위원들의 자질 논란 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 자치단체 간 유착 우려와 함께 업무 분장에 따른 치안 공백도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치안 정책을 발굴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가 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현실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주민들이 느끼는 자치경찰제의 체감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광주와 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호 시책으로 각각 '안심 스쿨존'과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안전도시 시스템 구현을 위해 안심 스쿨존을 선택했고, 전남도는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이처럼 첫 시책을 정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시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렵게 첫발을 뗀 만큼 초창기 약간의 혼선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선동열 야구학'

차범근·박지성·손흥민. 한국 축구 최고의 레전드는 누구일까. 축구에서 '차박손' 순위 논쟁이 있듯이 야구에서는 최고 투수를 놓고 '최선'(최동원·선동열) 논쟁이 계속된다. 팬들 사이에서 이들 두 투수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치 1승 1패 뒤 벌어진 전설의 441구(선동열 232구, 최동원 209구) 15회 무승부 경기처럼.

적대적 라이벌 관계였을 것이라는 팬들의 짐작과는 달리 두 사람은 매우 친했다고 한다. 선동열에게 최동원은 선배이자 인생의 멘토이며 영웅이었다. 선배는 가끔씩 후배를 불러내 밥을 사 주기도 했으며 반주로 술 몇 잔을 곁들이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동열아. 몸 관리 잘 해라. 투수에게 피로가 쌓이면 갑자기 가 버리는 수가 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다가는 몸이 망가질 수 있어."

'국보(國寶)투수' 선동열. 1982년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혜성처럼 나타나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고, 1985년 해태타이거즈에 입단해 11시즌 동안 146승 132세이브를 기록하며 여섯 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KIA 타이거즈는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의 등번호 18번을 챔스필드에 새기고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다. 다만 감독으로서는 삼성에 영광을 안겨 준 대신 KIA에는 좌절을 안겼는데, 팬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이다.

광주일보는 올해 중앙 선데이(SUNDAY)와의 제휴를 통해 '선동열 야구학'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사를 10회에 걸쳐 보도했다. 선동열은 류현진의 환상적인 피칭 터널, 타자들의 플라이볼 혁명,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 등 최신 야구 트렌드를 노련한 경험으로 치밀하게 분석해 소개했다. "눈으로만 보던 야구는 끝났다. 시행착오가 아닌 첨단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기마다 쌓이는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기록하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선동열 야구학'은 광주일보에 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갑용 KIA 코치 등의 인터뷰를 추가해 최근에 책으로도 발행됐다. 과학으로 야구를 보고 직감을 넘어 빅데이터로 무장한 국보 투수 선동열이 던지는 새로운 야구 이론이 최하위 성적에 상심한 KIA 팬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 주는 '쉼표'가 되었으면 한다.

/유제관 편집1부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